



“선수행의 寶庫이므로 징검다리 놓았을 뿐”

<대지관좌선법> 주석서 최초로 펴낸
김 무 득 씨

지관선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관선 주석서가 출판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중앙불교대학장 김무득씨가 펴낸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문주사)이 바로 그것으로, '마음을 직관해서 깨달음에 이른다(直指人心見性成佛)'는 달마선에 대해 "그것은 선에 대한 반쪽의 모습일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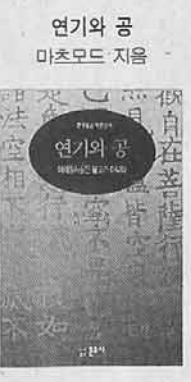
로 내려오던 수행방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편인 동시에 석가에 의해 보다 풍부해지고 구체화된 수행법이다.

“달마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지관선에 대한 이해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석가세존의 깨달음의 방편이었던 지관법에 대한 이해없이 중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달마선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에서의 달마선도 지관선과의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영향속에서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제의 책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 밝혀 주목

부처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연기설이다'는 것이 <연기와 공>의 기본적 입장이다. 즉, 우리가 관성적으로 불교의 근본사상이라고 믿어왔던 여래장사상은 실상은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며, 부처님에 의해 국화된 붓다 이전의 사상적 견해라는 것이다.



연기와 공
마초무도 지음

작지만 소중한 가치 일깨우는 어른동화

우리는 현사회를 각박한 사회,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라고 실심하게 말한다. 패권적 사정이 연일 보도매체에 오르내리고, 사회 곳곳이 무너지는 등 혼미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후 정신의 부재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샘들과 바가지
전준우 글

“한국선학의 불균형 바로잡는 계기됐으면”

뜻으로 우리말로 옮기고 꼼꼼한 주석을 붙여 풀어냈다. 원고량만도 2백자 원고지 7천5백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오는 7월 전권 가운데 3권까지 주석

일 전권이 완간되면 지관선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가 되는 것이다.

“<대지관좌선법>은 어렵고도 방대한 분량의 책이어서 여지껏 누가 번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책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방편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선수행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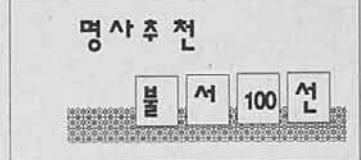
주석을 붙이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 비유하는 김씨는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관한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이 바로잡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대지관좌선법>을 마치는데로 선종의 대표적 저작으로 불리는 <석안록>에 주석을 붙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대중에게 희망주는 스님들 이야기

인간적 면모 · 구도행각 잔잔히 묘사



명사추천
불 서 100 선

“꿈같고 허깨비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은 것이 중생의 실상이라고 하였던 것은 누구의 ‘한소식’이든가. 이렇듯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무엇’을 찾아보고자 신세벽의 산길을 허위단심 올라갔던 것이 바로 어찌 같은데, 어언 서른 해가 흘러갔다. 연꽃은 그만두고 업장(業障)만 더욱 무겁게 한 채 다시 저자의 진흙 속으로 돌아온지도 어떤 수무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가(出家)’를 생각하고 있는 요즈음, 호림(曉林)스님의 책을 읽어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이 책에도 나오는 청담(靑潭)스님을 처음 보았던 것은 열아홉 살 나던 해였다. 그 함자만큼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고승(高僧)을 직접 뵈옵고 몇마디 가르침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방황하는 소년의 가슴은 여간 설레이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인연이었지만 지효(智孝)스님을 뵈옵고 그 길로 산으로 간 소년이 그 스님을 뵈시고 해인총림(海印叢林)으로 내려가 성철방장(性澈方丈)의 정근숙비 아래 가부좌를 틀어볼 수 있었던 것은 더 지중한 인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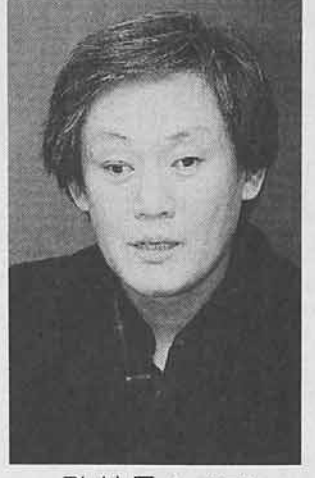
자네, 도가 뭘지 아나

화두(話頭)를 놓치기도 하였고, 어떤 수행자와는 함께 만행(萬行)을 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수행자와는 또 함께 부처와 중생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벌써 열반(涅槃)에 들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촉비소리에 은음을 맡기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 괴각승(怪客僧) 혜수(慧修)스님과 강화(江華) 정등사(淸燈寺) 객실에 헤어질 때 그는 “금강산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금강산으로 가다가 기관에 잡혀가 무수한 구타를 당하였는데, 계속해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구타를 당하던 끝에 열반을 재촉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스무 몇해 전 만났던 종태(宗泰)스님의 초청으로 화엄사(華嚴寺)에서 ‘실천 불교승가회’ 스님들과 ‘미륵사상’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그러하였는데, 그 스님 또한 지금은 사바에 없다.

지리산 반야봉 아래의 신비한 비구니 연화스님, 겨울산을 해마다 간성도인 혜명스님, 늘푸른 잔나루 동선스님, 좌탈입망한 명문스님, 도인이 되고 싶었던 함스님, 먹지 않고 사는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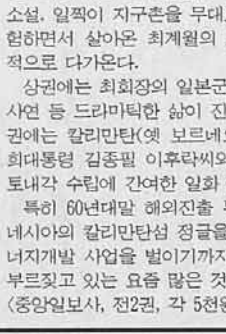
스님, 바람을 가르는 기린 명진스님 등이 책에 나오는 많은 스님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사람의 마음이 난다는 점이다. 스님이라고 해서 별세계의 특수종자가 아니라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삼아도(三惡道)의 중생들에게 환골이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산’이요 산에 사는 ‘스님’들이었다. 일체중생의 일체번뇌에 막힌 없는 해답을 하여줄 수 있어야만 마침내 ‘진리’일 수 있는 것이려면, 그 진리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이 스님인 때문이다.



김성동 <소설가>

개달음 노래한 티벳문학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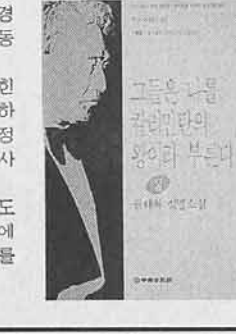
▲ <미라레빠의 십만송>은 티벳의 대표적 인성자 미라레빠(1052~1135)의 생애와 그의 개달음의 노래를 담고 있다. 성자의 전기 혹은 헌신과 수행의 지침서로, 노래와 시집으로 그리고 티벳 전설로 가득 차있어 ‘영감과 기쁨의 원천’으로 불릴 정도로 티벳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미라레빠의 십만송
이정섭 옮김

불자기업인 최계월의 감동적 삶 그려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는 불심으로 기업을 일군 최계월 회장(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실명소설. 일찍이 지구촌을 무대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최계월의 풍운아적 삶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나를...
권태하 지음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2	자네, 도가 뭘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3	연꽃만화	장지연	부다기야
4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자사
5	금강경 강의	무비	불교출판부
6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	우리출판사
7	사천강단(四川講壇)	민영규	우반
8	농염경 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9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관심	대원정사
10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종교도서 4.8% 줄어 작년 전체신간은 늘어

지난해 출판계 전체의 신간 발행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종교분야 발행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의 '94 출판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행총수는 29,564종으로 93년보다 12.3% 늘어났으며 발행부수도 1억5천여만부로 9.4% 증가했다. 반면 종교도서는 93년 2,040종에서 1,941종으로 4.8% 감소했다. 책값은 8,185원으로 7.8% 높아졌으며, 면수도 260면에서 267면으로 늘어났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성복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지배력 마두라 지역에 햇볕을 받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흥분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설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적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